

“산재 없는 한해 되길...열심히 재활해 일터 복귀해야죠”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서 재활의지 다지는 3인

“신체 고통보다 먹고 살 걱정·사회적 고립감에 더 힘들어”

2022년 광주·전남 8399명 재해...2년새 600여명 증가

“산재 없는 한해 되길, 열심히 재활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지난해 4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조범희(37)씨의 올해 소망이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매일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의원에서 재활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조씨는 “사고 당시 고통보다 컸던 건 어린 아들과 딸에 대한 걱정이었다”며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가장 먼저 걱정됐고 수술 후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고 회상했다.

반년 동안 재활을 반복하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막막함도 있었고 다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주눅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와 의원 내 심리상담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신체·정신적으로 90% 이상 회복해 현장 복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조씨와 같이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노동자는 한해 8000여 명에 달한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노동자는 지난 2020년 7723명에서 2021년 8473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도 839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평균 광주·전남 22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셈이다.

광주지역 식자재 마트에서 제품 판매·진열 업무를 맡고 있는 유현주(여·53)씨는 지난해 5월 박스를 들고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 이동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슬개골이 골절됐다.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8개월간 재활치료를 한 유씨는 “위험한 건설 현장도, 야외 작업을 하는 곳도 아니기에 큰 변수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일하다 다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당연히 정년까지 다닐거라 생각했던 직장을 어쩌면 그만뒀어야 할 수도 있던 생각이 두려웠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달 20일 직장으로 복귀한다. 소방설비 작업자 정기원(40)씨도 지난해 8월 29일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 오르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다.

사고 당시 사다리는 고정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사다리 계단에는 물기가 고여있었다. 또 작업의 특성상 작업량이 바로 수익과 연관되는 탓에 홀로 서두른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

넘어지는 순간 가족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는 정씨는 “아내가 현장은 항상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며 “가장으로서 직장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평소 100kg에 달하는 아파트 배관도 번쩍 들어올렸던 정씨지만 지금은 10kg 무게밖에 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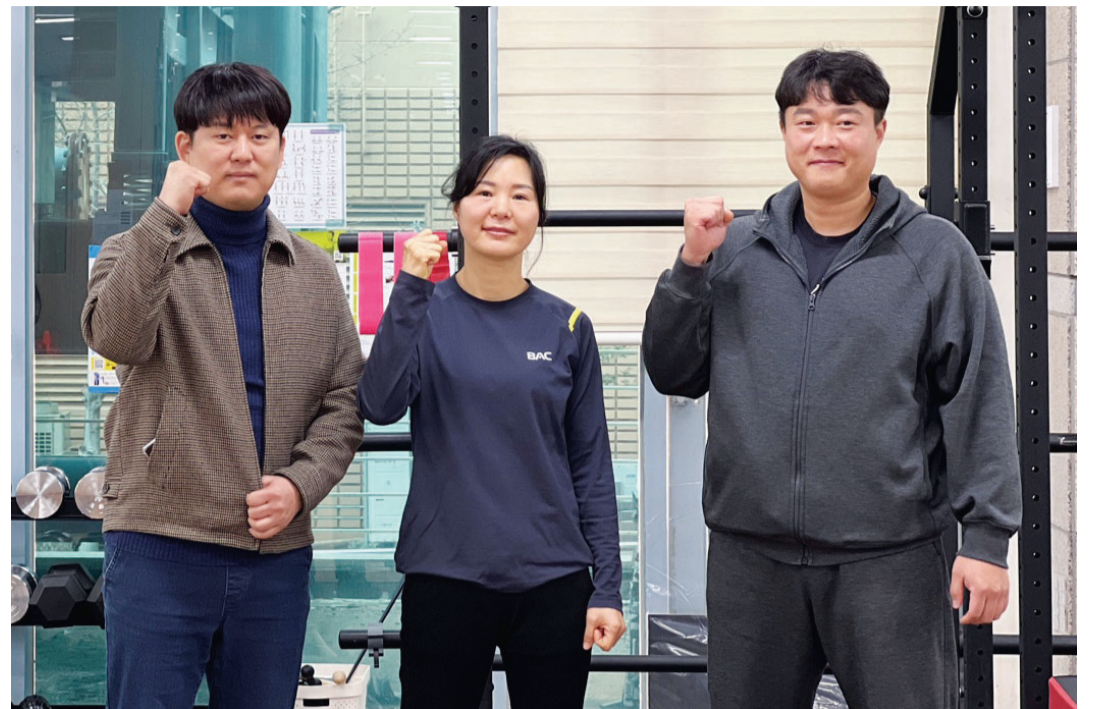
매일 재활병원에서 근력·코어 근육 강화운동과 재활치료를 전념했다. 지난해에는 연필 하나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난이도 높은 전기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정씨는 “신체 중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오른손을 크게 다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함이 컸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해는 재활치료를 마치는대로 새로운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일하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사고를 늘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의원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재활을 돕는 센터이며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전국에 설치된 3곳(광주시·서울시·부산시) 중 한 곳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정기원(왼쪽부터), 유현주, 조범희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법경찰 업무능력 평가 결과는?

광주변호사회, 18일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초로 사법경찰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14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사법경찰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오는 18일 광주지방변호사회 6층 대회의실에서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초로 평가한 결과라고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평가는 지역 변호사들이 업무과정에서 만난 사법경찰관들을 평가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수경찰서 및 우수사법경찰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점수는 평가경찰서별 설문 참여 편차가 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철수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사법경찰평가로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해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해임됐다

활일봉 전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데 이어 정성국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장이 해임됐다.

14일 공법단체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임시 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 회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감사·이사 등 집행부를 포함한 총 4명을 불신임한다는 것이 골자다. 회장 해임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나머지 집행부 해임안도 큰 차이를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신임 이유는 이사회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와 정율성 공원조성 반대 신문광고 등의 단독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해임되면서 회장 직무는 심정보 부회장이 대행한다.

심 부회장은 “다음 달 정기 중앙총회를 열어 공식인 회장·감사·이사 등을 선출해 5·18 부상자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을통장 기본수당 인상

광주구청장협, 월 40만원으로

광주지역 통장(統長) 월 기본수당이 올해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14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통장 기본수당은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지역 5개구 통장은 총 2495명으로 한 달 1~2회 가장 통장회의에 참석해 행정 민원을 건의하고 전입가구 확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민방위 통지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배부 등의 역할을 한다.

인상된 기본 수당은 이달 20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광주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족과 긴급복지대상 가구 3212세대, 사회복지시설 36곳에 난방비 4억 58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유치원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건의해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고려인마을, 어르신 무료급식 주 5회로 확대

광주시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이 고령에 수입이 없는 정작 고려인을 위한 정기 무료급식을 주 2회에서 5회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취약계층인 광주이주 고려인 동포 노인들의 건강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급식과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은 그동안 매주 2회 노인돌봄센터를 찾은 몇몇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 온 것을 주 5회 정기 점심 무료급식으로 확대하고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에 나섰다.

2000년대 초반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은 젊은 층 위주였지만 이후 부모세대가 뒤따라 이주했다. 입국 초기에는 노년층도 농촌 일용직으로 생업에 종사했으나 시간이 지나 노년층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노동력 없는 70세 이상 노년층이 100여명에 달하게 됐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낮선 조상의 땅에 들어와 외롭게 살아가는 노년층이 없도록 돌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3대가 행복한 고려인마을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학폭 지도하다 학대 오명 ‘극단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법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백모 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백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응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순직유족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 교사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백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

분을 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다. 2021년 3월 백 교사는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백 교사 유족과 노조는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해 전남지역 교사 5000여명의 탄원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2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청구는 기각됐다.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순직유족급여 불응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의 죽음에서 감정과 정서적 인과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